

“종법 몰라 당하는 피해 예방”

조계종 호계원 첫 판례집 준비배경

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제소자도 처벌 하도록 되었다. 이는 고계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처리하기위한 것으로 종법에서는 호법부나 호계원에 제소토록 되어있다. 특히 주지스님들의 횡령(?)도 주의할 사항. 원주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있는

징계사항·제소방법·사찰분쟁 유형 소개 교계문제 자체해결 위한 ‘사법권 찾기’

호계원이 준비중인 호계원보는 △호법부의 징계사항 △사찰간의 마찰 △삼승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제소방법과 양식 등을 소개하고 자료수집,원고작성을 거쳐 내년 봄에 발간할 예정이다. 불교계내부의 문제를 종헌 중점으로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고 보면 호계원의 자기위상찾기는 획기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첫 불교판례집이 될 호계원보는 종헌중법을 모르고 있는데서 오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있어 의의가 크다. 예를들어 종무원간에 일어난 사소한 폭력을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종법에서

이처럼 호계원이 자기위상 알리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있으나 홍보뿐 아니라 내부다듬기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호계원의 상근직 실무자는 주임 1명뿐,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조사를 해야하는데 인력부족으로 업무들

내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무원과 발개의 독립된 원이지만 재정을 종무원이 관장하고 있어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요청이다.

한편 호계원은 일반사회의 지법이나 고법적인 초심호계원(원장 원서)과 대법원적인 재심호계원(원장 고산)으로 구성되어있다. 호계원은 지난 95년 1월 사무처를 구성한 이후 초심 32건 재심 6건 등 총 38건의 사안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재산처분과 승규위반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이준엽 기자



○부산선암사는 부산지역의 시민환경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차원에서 백양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사진은 대한주택공사 대신 시위장면.

선암사 주최 제1회 부산환경포럼

개발위주의 정부정책으로 인해 이땅의 산과 가람들이 침살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일 부산 선암사(주지 덕륜)는 교수 99명과 시민단체대표 등 1백18명의 부산 지역 지식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부

문화적 종교적 의미가 있다’며 ‘산에 절이 안겨있는 형상이므로 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교도 미래를 기약 할 수 없다’ 주장하고 선암사 녹지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임호씨(부산환경연구소)도 ‘개발과

“백양산 훼손 도심환경폐화 초래”

지식인 118명 선언문 채택...개발 취소 촉구

산환경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부산지역의 시민환경권 보호와 생태계보존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급증한 황폐한 백양산을 보호하는데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유병근씨(시인)는 ‘우리의 산과 가람은 70%의 민족문화재를 보유한

선암사 녹지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임호씨(부산환경연구소)도 ‘개발과

그동안 정당불자회에 대한 교계의 시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대선을 몇 달 앞두고 결선택투는 선거가 끝나면 살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리는 대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구성되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선거를 1년6개월여 앞두고 활동에 들어갔다. 또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불자모임을 조직해 활동에 들어간 반면, 여당인 신한국당은 아직 회장단 구성도 못하고 있다. 정당불자회만 놓고본다면 여야가 뒤바뀐 양상이다.

“바른정치 이끄는 창구 되길”

여야 불자회 잇단 결성에 거는 기대

자민련불자회(회장 정상규의원)가 지난해 10월 결성, 현재까지 매일 정기법회를 병행하고 있다. 구천서 권수창의원 등 8명의 의원과 1백여명의 당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회의도 채영석 추미애 한영애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 11명과 40여명의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불교신행모임인 새연동회(회장 박상규의원)를 조직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김대중총재와 함께 해인사를 방문하고 해암방장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신한국당 직능국의 한 관계자는 ‘여휴휴가 끝나는 9월쯤에 불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한 정당불자회 회장직이었던 광정출 정의원이 4.11총선 공천탈락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정당불자회 관계자들은 불자회가 대선용이 아니라 강조한다. 그러면서 소속정당을 위한 모임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자민련불자회장 정상규의원은 ‘결코 대선용이 아니며, 당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다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새연동회 총무간사 조성준의원도 ‘의정활동과 관련해 불교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창구로서 불교계에 비쳐질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정책당임을 표방하면서도 최대종단인 불교계의 목소리에 소홀했다는 자체반성이 새연동회 탄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운 기자

해행위라며 정부의 개발취소를 촉구했다. 한편 부산 선암사의 아파트건설은 정부가 경내지 2만3천여평을 택지개발지구로 공고하고 강제수용한 상태로 수용된 토지의 반환과 멸실위기의 백양산 천연동치림 보호에 진력해오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열린 환경포럼은 지역사회의 지도계층인 부산지역의 교수 지식인 환경운동가와 함께 토론하고 ‘사찰에 피해가 있다, 없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지역환경보호 차원에서 이해를 같이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특히 사찰이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도시

계획에서 소외되는 상황임을 인식한 선암사는 사찰환경권의 보호차원에서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백양산보존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선암사 교무 범용스님은 ‘정부의 택지강제수용제도와 주택공사제도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필요악’이지만 땅이 좁은 일본에서도 13년전에 폐지된 상태’라며 주택공사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시론

이 가을 정신을 가다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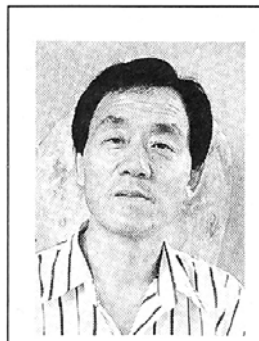
입추 말복이 지나면서 가을이 빠빠다가선듯하다. 절기의 위력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된다. 결실을 떠올리는 가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신을 가다듬게 된다.

‘거품병’ 어디서 왔나

“숲속을 걸어가면서 시냇물 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고, 새소리를 듣고, 시원한 바람에 맘을 식히면서 나는 감사한다. 동태국에, 감자부침이나 호박엥도 술 한잔을 곁들여 마시면서, ‘아, 이 세상에서 나처럼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하고 아내에게 묻는다. 아내는 이런 음식 정도에 그렇듯 감탄을 하는 것을 보면 당신의 막을 복은 그저 그렇고 그런가 봐요, 하고 나를 깔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매년 맛있게 말하고 잘 먹었다고 말하곤 한다. 물론 기식이 하는 입에 바른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몇 십억원짜리인가? 당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얼마짜리인가? 왜연인가 국산인가. 소형차를 타는 것은 체면 문제인가 최소한 중형차 이상은 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수출품을 생산해내던, 국내의 이곳저곳에 있는 공장들이 텅텅 비었다.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다른 임금 싼 나라로 옮겨갔다. 그런데 당신이 잘치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 마시고 있는 술, 사용하고 있는 부엌용품, 안방에 있는 침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쓰고 있는 볼펜, 아이들한테 사주고 있는 학용품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것인가.

해마다 우리 경제는 백억 달러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군가가 저 빛을 갚아주겠다고 하고 생각하면서, 외국 여행중에 값비싼 보석을 사오고, 골프채를 사오고, 양주를 사오고, 전자제품을 사온다. 빚더미에 앉아 있던 프랑스의 옷공장, 이탈리아의 가방공장들이 한국 바이어를 때문에 가득 쌓여 있던 재고를 다 없애고 오히려 성수기를 맞았다고 한다.



한승원 (소설가)

우리들의 기업들은 허덕이는데, 쌀아놓은 돈도 없는데, 근대화의 부작용으로 감과 사과와 농토와 바다 같은 공해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가장 든든하게 여겼던 반도체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수출 수입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외제 좋아하는 국민

외제때문에 경제가 파탄되는 나라 이야기가 물 건너 저쪽 어디의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거라고 생각하고 바다 건너로 돈을 몰쓰듯이 하려고 날아가고 또 날아가곤 한다.

다리가 무너지듯, 백화점이 무너지듯, 가스관이 폭발하듯, 비행기가 떨어지듯, 배가 가라앉듯이 언젠가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터지고 가라앉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진국 국민이라는 착각을 한 채 정신없이 과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은 휴가와 소비를 새겨놓고 흘러간다. 가을의 문턱에서 스스로 돌아보며 삶의 못매무새를 다져잡아야 하겠다.

협찬 : 김문배

생활 속의 불교 85

다 주신 분께 더 달라고 손 내밀어?

우리는 서로 돕고(相助) 서로 의지(相依)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렵다. 혼자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자립하기까지 부모의 도움은 절대적이지만 자란 이후에도 주변의 도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으레 그 해결책을 밖에서 구하려 한다. 누구 도움을 청할 곳은 없을까, 밖으로 기대는 버릇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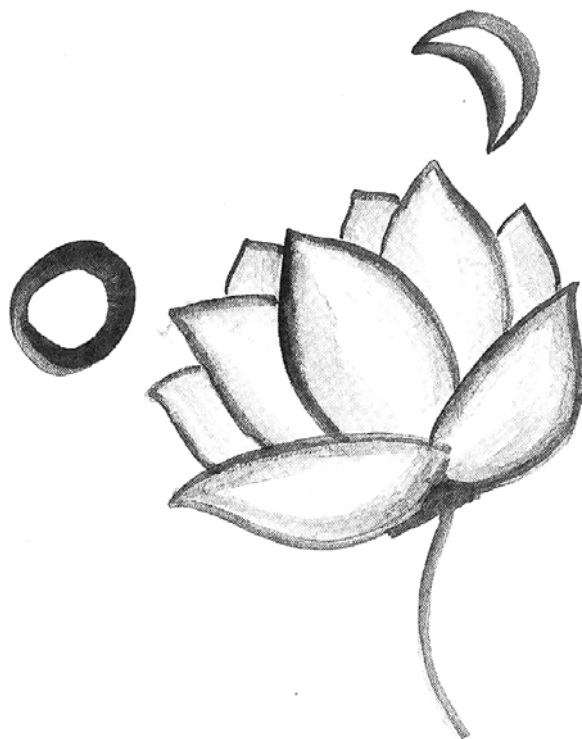
그러나 남이 주는 도움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다. 한 끼의 식사, 한 모금의 물이 될 수는 있어도 평생을 두고 구족할 양식이 되지는 못한다. 게다가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 채워도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욕망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더 있었으면 하는 갈증 속에서 산다. 언연중에 더 달라는 버릇에 젖어 산다.

부처님 전에 가서 밥 해 놓고 빌고 떡 해 놓고 비는 버릇은 생활 속에서 몸에 밴 갈증 탓일 게다. 누군에게가 도움을 청하고 더 늘었으면 하고 바라던 심정이 부처님 전에 왔더라 구복·기복하는 습을 낳았던 것이다.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내 내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복·구복의 행위는 더욱 강렬해진다.

병을 낫게 해 주시오, 자녀의 합격을 발원합니다. 승진할 수 있게... 돈 좀 더 벌게... 비는 내용도 끝이 없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부처님의 복 주는 능력을 믿는 것인가, 부처님의 무소부지의 해결 능력을 믿는 것인가?

부처님을 믿는 것은 부처님의 체법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이 부처님이기때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건 ‘절지전능한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하느님’을 넘어선 분이요.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을 알려 주신 분이요. 즉 락으로 들게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즉 락으로 드는 문을 가리켜 주신 분이요.

부처님은 나를 내려다 보면서 착한 일에 상을 주고 악한 일에 벌을 주는 재판관이 아니다. 부처님은 나의 신심이 기뻐하다 하여 복을 한아름 안겨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부처님을 믿는 분으로 안다면 그것은 부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지요, 그런 믿음은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다.

부처님은 나의 실상(實相), 우주의 실상을 알려 주신 분이요. 우리로 하여금 실상과 만나도록 가르침을 주고 몸소 체험을 통해 보여 주신 분이요.

부처님께서 보여 주신 소식 중에 가장 반가운 소식은 누구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욕심으로 구하던 모든 것이 다 제 속에 있고 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대가 바로 보배 창고이니라, 나는 그대들에게 그 창고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 주노니 그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제 속 속에 보배 창고의 열쇠가 있음을 알리라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배 창고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 준 분께 가서 보배를 꺼내 달라고 졸라댄다. 제 창고의 보물을 제 손으로 꺼내려 하지 않고 부처님 보고 꺼내 달라고 보낸다. 열쇠를 제 품에 감춰 놓고서 말이다.

부처님은 방법을 알려 주시므로써 다 가르쳐 주셨고 다 털어 놓으신 분이요. 그런 분에게 무엇을 더 달라고 할 것인가?